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유골봉환을 위한 학술연구 및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조성계획

중간보고

- ◆ 일시 : 2005년 6월 29일 (수요일) 14시
- ◆ 장소 : 전라남도 진도군청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유골봉환을 위한 학술연구 및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조성계획

중간보고

- ◆ 일시 : 2005년 6월 29일 (수요일) 14시
- ◆ 장소 : 전라남도 진도군청

목 차

1.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방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중간보고. (원광대/박맹수) 1
2.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충북대/박선주) 31
3. 진도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사례연구 (원광대/신순철) 별지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방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중간보고)

-일본 홋카이도대학의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방치사건’을
중심으로-

朴孟洙
(圓光大 圓佛敎學科 助敎授)

1. ‘유골방치사건’의 개요

1995년 7월 25일 일본 北海道大學(홋카이도대학) 文學部 古河(후루카와) 강당 인류학교실 舊標本庫 정리 작업 중에 현 신문지에 싸여 종이상자에 넣어진 채로 나무 책장 위에 방치되어 있던 사람의 두개골 6구가 발견되었다.¹⁾ 이 6구의 두개골 속에는 놀랍게도 “1906년 9월 20일, 全羅南道 珍島에서 佐藤政次郎(사토 마사지로)가 ‘採集’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들어 있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²⁾ 1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1구를 포함한 6구의 두개골이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구표본고 정리 작업을 위해 고용되었던 아이누 민족 인부 한 사람이 현장을 목격하여 아이누민족 인권운동단체인 ‘아이누 민족에 관한 인권개발 사진판넬전 실행위원회’ 대표 山本一昭(야마모토 카즈아키) 씨에게 제보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사람의 두개골이 방치

* 이 중간조사보고는 전라남도 진도군청의 용역 의뢰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毎日新聞』 1995년 8월 3일자 朝刊, 『北海道新聞』 1995년 8월 3일자 夕刊 및 北海道大學文學部 古河講堂 舊標本庫 人骨問題 調査委員會 『古河講堂 舊標本庫 人骨問題 報告書』(1997年7月), 1쪽 참조.

2) 발견될 당시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은 두개골뿐이었으나 이 글에서는 ‘유골’이라 칭하기로 한다. 또한 6구의 두개골 방치사건을 ‘유골방치사건’이라 부르기로 한다.

된 현장을 목격한 아이누민족 인부로부터 제보를 받은 야마모토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즉각 일본의 3대 일간신문의 하나인 『毎日新聞(마이니치신문)』에 알렸으며, 『毎日新聞』은 동년 8월 3일자 朝刊에 특종 보도함으로 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³⁾ (<자료-1>참조)

‘유골방치사건’이 일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사건의 파문이 크게 확산되자 구표본고가 있는 古河강당 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홋카이도대학 문학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사건 직후에 ‘古河講堂 舊標本庫 人骨問題 調査委員會’(이하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라 약칭함)를 설치하여 6구의 두개골이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게 된 경위를 포함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였다.⁴⁾

홋카이도대학 측이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식적 대응에 나섰던 배경에는 ‘유골방치사건’을 일간지에 제보하여 일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아이누민족 인권운동단체를 비롯하여, 民團系인 재일청년동맹 홋카이도지구본부, 總連系인 조선총련 홋카이도본부, 주삿포로 한국총영사관 등 두개골 방치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국과 북한 측의 진상규명 요구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외 관련 시민단체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었다.⁵⁾ 그런데 6구의 두개골 가운데 진도출신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 1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8월 4일이였다.⁶⁾(<자료-2> 참조)

3) 이 ‘유골방치사건’은 『毎日新聞』 외에도 『北海道新聞(홋카이도신문)』, 『朝日新聞(아사히신문)』,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日本經濟新聞(니혼케이자이신문)』, 『赤旗(아카하타)』, 『共同通信(쿄도통신)』 등의 보도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4) 앞의 주1)에 인용된 『古河講堂 舊標本庫 人骨問題 報告書』1쪽.

5) 『飛礫』11號(1996년 6월, つぶて書房, 神戸)에 실린 「北大人骨事件と日本侵略史」라는 主題의 特輯 기사 참조. 이 특집 기사 속에는 北海道大學文學部の 『中間報告書』發表 前後 事件의 真相 糾明을 위해 活動했던 <北大人骨問題の真相を究明する会>의 共同代表인 재일동포 林炳澤 氏의 기고문, 아이누민족 인권운동 리더들인 야마모토 카즈야키(山本一昭) 氏와 오가와 유키치(小川隆吉) 씨와의 대담 등을 실고 있다.

6) 한국에서는 1995년 8월 3일자 일본 共同通信의 「朝鮮民族などの人骨放置」라는 제목의 기사를 받아 보도한 『한겨레신문』 1995년 8월 4일자의 「동학지도자 유골 일본서 발견」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자료1>



<자료2>

『한겨레신문』과 KBS 등의 보도를 통해 동학농민군 ‘유골방치사건’ 소식을 접한 국내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하여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당시 이사장, 한승헌), 천도교 중앙총부(당시 교령, 김재중), 전라남도 진도 향토사 연구자 (박주언) 등이 홋카이도 대학 문학부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진상규명 및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의 국내봉환을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⁷⁾ 이로써 홋카이도대학에서 일어난 ‘유골방치사건’은 일약 국제적인 문제로 飛火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유골방치사건’이 알려진 이후 일본 국내·외로부터 동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 및 유골봉환 등의 요구를 받은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는 전라남도 진도, 목포를 비롯한 한국 각지의 현지조사⁸⁾ 내용을 포함한 중간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1996년 4월에 『古河講堂 舊標本庫 人骨問題 調査委員會 中間報告書』(이하 『중간보고서』라 약칭함)를 공표하였다. 『중간보고서』에서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는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 속에 들어 있던 ‘첨부분서’를 근거로 하여 동학농민군 유골의 주인공이 전라남도

7) 한국 외교통상부는 주삿포로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8월 7일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8월 19일에 진상규명 및 유골봉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8) 이 현지조사는 1995년 12월 10일에서 15일까지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인 이노우에 카츠오 교수와 동 조사보조원 이노우에 카오리 특별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진도출신 동학농민군 지도자였음을 최종 확인하고, 1996년 5월 30일에 동 유골을 한국으로 봉환하였다.⁹⁾

『중간보고서』 공표 및 유골의 한국봉환 이후에도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의 요구를 반영한 제 2차 한국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이 같은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1997년 7월에 『古河講堂 舊標本庫 人骨問題 報告書』(이하 『최종보고서』라 약칭함)를 공표함으로써¹⁰⁾ 공식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종료하기에 이른다.

1997년 7월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가 2년여의 진상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한 『최종보고서』는, 1906년 9월 20일 전남 진도에서 일본인 사토 마사지로가 ‘채집’한 동학농민군 유골의 주인공이 40대의 한국인 남성으로 전라남도 진도 출신 동학농민군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1894년 12월 말이나 1895년 1월 초에 희생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진도출신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이 어떤 경로를 거쳐 한국의 최남단 전라남도 진도로부터 일본의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될 수 있었는지, 그 자세한 반출·반입 경위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동 보고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남도 진도에서 활동했던 다수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의 인적사항을 일부 확인하는 성과는 거두었지만, 그 가운데 누구의 유골인지는 끝내 해명하지 못함으로써 미해결 과제를 남겼다. 그 뿐만 아니라,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과 함께 발견된 사할린 일대의 소수민족인 율타민족¹¹⁾의 유골 3구를 비롯한 나머지 5구의 유골의 출처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침으로써 사할린과 홋카이도에 現住하고 있는 율타민족 지도자를 비롯하여 홋카이도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들과 아이누민족 등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음으로써 추가적인 진상조사활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¹²⁾

9)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이 비교적 단기간 안에 한국으로 봉환될 수 있었던 것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이사장 한승헌)를 비롯한 한국 측 관련단체의 강력한 봉환 요구 때문이었다.

10) 이하 본문 인용의 경우 『최종보고서』 몇 쪽이라고만 표기하기로 한다.

11) 사할린 일대에 거주하는 북방 소수민족의 하나. 율타민족에 대해서는 田中了 『サハリン北緯50度線』(東京、草の根出版会、1993年) 参照.

12) 율타민족 등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홋카이도대학 문학부는 결국 최종보고서 공표이후 진상조사 작업을 종결하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추가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2004년 3월 율타민족

홋카이도대학에서 발견된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은 국내 관련단체 및 관련 연구자들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덕분에 비교적 단기간 안에 국내로 봉환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로 봉환된 유골은 고향인 진도로 봉환되지 못하고 전라북도 정읍시 황토현기념관 사당에 임시 안치되는 절반의 봉환에 그치고 말아 고향으로의 완전 봉환은 숙제로 남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세기 이상 경과한 1995년 7월에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에서, 그것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뒷받침해 왔던 舊帝國大學의 후신인 北海道大學 문학부 인류학교실 구표본고한 구석에서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로 있던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이 발견된 사건은 한국 측에 다음과 같은 커다란 과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동학농민군지도자 두개골을 이른바 ‘採集’이란 이름으로 불법 수집하여 일본으로 반출하도록 만든 역사적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둘째 ‘視察’을 빙자한 日帝의 식민정책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은 어떠했으며, 1876년 開港 이래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 ‘視察’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자리하고 있었을까?

셋째 전라남도 진도 현지에서 불법으로 ‘採集’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은 어떤 경로를 거쳐 일본으로 반출되며, 반출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이 일본 최북단의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기까지 홋카이도 대학 측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넷째 1894년 12월말 전라남도 진도에서는 일본군이 진주한 상태에서 수백 명의 동학농민군이 처형당했는데, 이들 동학농민군 처형 및 진압의 진상은 과연 어떠하였으며, 동학농민군 진압 과정에서 저지른 일본군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 책임은 어떤 것일까?

다섯째 전라남도 진도는 러일전쟁 이후 일제에 의한 ‘棉花栽培事業’의 주무대가 되며, 동 사업을 지도·감독하던 통감부 하급관리 사토 마사지로(佐藤政次郎)에 의해 동학농민군 유골이 불법 ‘채집’ 되어 반출되기에 이른다. ‘면화재배사업’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던 일제의 조선침략 실상은 과연 어떠했을까?

유골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결과를 정리한 『古河講堂 舊標本庫 人骨問題 報告書 II』(홋카이도대학 문학부 후루카와강당 구표본고 인골문제 조사위원회)를 공표하기에 이른다.

이상과 같은 복잡다기하면서도 중대한 학문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동학농민군 ‘유골방치사건’은 필자가 영산원불교대학교(靈山 圓佛敎大學校, 현재는 靈山 禪學大學校로 개명하였음)에 재직하고 있던 1995년에 일어났다. 당시 필자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¹³⁾ 학술간사도 兼務하고 있던 때여서 이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게 된 1995년 8월 4일 이후 ‘유골방치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 작업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었다.

우리 측의 ‘유골방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1996년 2월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이던 한승헌 변호사와 함께 홋카이도대학을 방문하여 동 대학 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경과를 확인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¹⁴⁾ 또한 1996년 5월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 봉환단이 홋카이도대학을 방문하여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동 대학 조사위원회 『중간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동학농민군 처형 및 진압에 대한 일본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한일 양국 연구자에 의한 공동조사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97년 7월에 공표된 홋카이도대학의 『최종보고서』는 우리 측의 요구가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최종보고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유골방치사건’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한 총체적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한국 측 연구자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조사결과를 얻고자 渡日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1997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만 4년 동안 홋카이도대학에 체재하면서 ‘유골방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였으며, 2001년 4월에 귀국한 이후에도 국내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계속하였다. 이번 중간보고는 이 같은 진상규명 작업과정에서 확인된 성과의 일부이다. 또한 이 중간보고가 있기까지에는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인골문제 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이자, 필자의 홋카이도대학 유학시절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던 井上勝生(이노우에 가츠오) 교수, ‘유골방치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홋카이도대학 교육학부의 특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井上 교수의 진상조사 작업을 도왔던 釧路(쿠시로)短期大學의 井上 熏(이노우에 카오리) 교수, ‘유골방치사건’을 일간지에 최초로 제보했던 아이누민족 인권운

13)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민간단체로서 1992년 전라북도 전주를 중심으로 결성된 시민단체이다.

14) 「遺骨返還など求め北大訪問、放置問題で韓国関係者」(1996년 2월 5일、日本 共同通信発) 参照。

동가 山本一昭(야마모토 카즈아키) 씨, 아이누민족 인권운동단체인 ‘피리카 전국회의’ 사무국장 白川 ただし(시라카와 타다시) 씨, 홋카이도에서 재일동포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林炳澤 씨 등의 귀중한 敎示와 전면적인 협력, 방대한 분량의 사료 제공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지면을 빌어 그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 진상규명의 단서가 된 ‘첨부문서’

1995년 7월 25일, 6구의 두개골이 발견된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古河강당 구표본고를 오랜 기간 사용했던 인물은 동 대학 문학부 인류학교실을 1995년 3월 말에 퇴직한 吉崎昌一(요시자키 마사카즈)라는 인물이었다.¹⁵⁾ 그는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에 출두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후루카와 강당으로 옮겨오기 전부터 6구의 두개골을 보관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두개골이 언제 어떻게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었는지, 누구로부터 두개골을 인수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명확한 증언을 거부하였다.¹⁶⁾ 유골의 출처와 유래를 비롯하여 유골이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된 과정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사건당사자 요시자키 씨의 비협조 때문에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는 6구의 두개골이 어떤 경로로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었는지 그 경위를 조사할 만한 단서는 거의 찾아낼 수 없었다고 한다.¹⁷⁾

이리하여 진상규명의 단서가 될 만한 것이라고는 겨우 다섯 구의 두개골 각각에 붙어 있던 글씨가 쓰인 쪽지(<사진-1 참조>), 나머지 1구에 쓰여 있는 “한국동학당 수괴의 수급이라고 한다, 佐藤政次郎으로부터”라는 붓글씨(<사진-2 참조>), 그리고 그 붓글씨가 쓰여 있는 두개골 大後頭孔 속에 들어 있던 ‘髑髏(해골-필자)’라는 제목의 「첨부문서」 뿐이었다.(<사진-3 참조>) 6구의 두개골의 출처와 유래를 규명할 만한 유일한 사료라고 할 수 있는 동학군 유골 「첨부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15) 1995년 3월말 북해도대학을 퇴직한 요시자키 마사카즈 씨는 북해도국제정보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했으나 현재 단계에서 퇴직 여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16) 『최종보고서』 8-9쪽. 필자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요시자키 교수에게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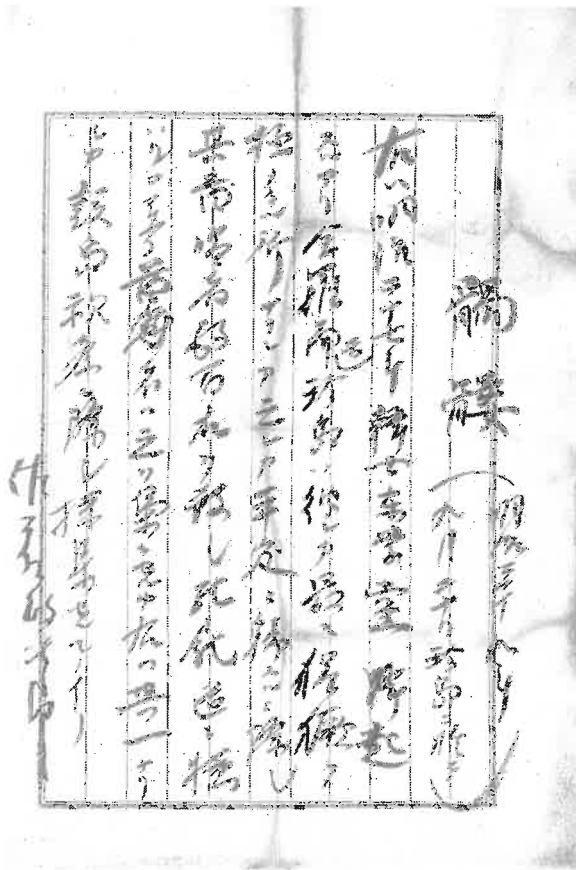
17) 『중간보고서』 참조.



<사진 4.1995년 7월 28일 촬영,야마모토 카즈아키씨 제공>



<사진 5.1995년 7월 28일 촬영, 야마모토 카즈아키씨 제공>



<사진 6.1995년 7월 28일 촬영,이노우에 카츠오교수 제공>

촉루

명치 39년(1906년: 필자) 9월 20일 진도에서

명치 27년(1894년: 필자) 한국동학당 봉기가 있었다.

全羅南道 珍島는 그들이 가장 창궐했던 곳이었는데, 그들을 평정하고 돌아올 무렵에 그 수창자 수백 명을 죽여서 시체가 길을 가로막고 있을 정도였다. 수괴자(首魁者)는 효수하였는데 이 촉루는 그 가운데 하나로 그 섬을 視察할 때 採集한 것이다.

佐藤政次郎

(이상 고딕은 필자)

유골 표면에 “한국동학당 수괴의 수급이라고 한다. 佐藤政次郎(사토 마사지로)로부터”라는 붓글씨가 쓰여져 있는 동학군 유골 속에 들어 있는 이 「첨부문서」는 동학군 유골이 ‘명치 39년(1906년) 9월 20일’에 ‘全羅南道 珍島’를 ‘視察’하는 과정에서 ‘佐藤政次郎’이라는 인물에 의해 ‘採集’되었으며, 채집 시점으로부터 12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명치 27년 한국동학당 봉기’, 즉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首魁者’ 즉,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첨부문서」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 동학군 유골을 채집했는지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같은 기록 방법은 유골 채집자가 사람의 두개골을 채집하는 방법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교육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즉, 「첨부문서」는 동학농민군 유골이 결코 ‘우연하게’ 채집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두개골 채집과 관련된 인류학적 지식과 방법을 사전에 몸에 익히고 있었던 인물에 의해 ‘의도적’으로 채집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표면에 쓰여진 것과 똑같이 「첨부문서」 맨 마지막에도 ‘佐藤政次郎’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쓰여져 있는데, 이 ‘佐藤政次郎’이란 이름을 근거로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는 동학농민군 유골을 채집했던 채집자가 바로 동 대학 전신이었던 札幌 農學校(삿포로 농학교) 제 19기 졸업생임을 밝혀내게 된다.¹⁸⁾ 채집된 유골의 「첨부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힌 것 역시 유골 채집과 관련된 근거를 명확하게 해둠

18) 유골의 채집자인 佐藤政次郎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으로써 유골 채집과정 및 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점 역시 채집자가 사전에 인류학적 지식·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던 흔적이라 생각된다.

「첨부문서」 및 유골 표면에 쓰여 있는 ‘佐藤政次郎’이라는 인물에 의해 일단 채집된 동학군 유골은 또 다른 일본인에게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사토 마사지로와 또 다른 일본인 사이에 동학군 유골이 수수(授受)되는 시점은 「첨부문서」 및 동학군 유골 표면 등 두 곳에 쓰여진 ‘한국(韓國)’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볼 때 국호가 ‘조선’으로 바뀌는 1910년 8월 29일의 ‘한국병합’ 시점으로부터 그다지 머지않은 시기로 추측되고 있다.¹⁹⁾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에 의한 진상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국 측의 진상조사 작업 역시 “한국동학당 수괴의 수급” 속에 들어 있던 이 「첨부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과연 역사적인 사실인 지 아닌 지를 검증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3. 붓글씨의 주인공 ‘佐藤政次郎’과 일제의 식민정책

1997년 4월부터 홋카이도대학에 유학하면서 진행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필자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소속 조사위원 가운데 1인인 井上勝生 교수 및 동 조사위원회 조사보조원 井上 薫 특별연구원으로부터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측의 진상조사 성과를 청취하는 일이었다. 조사 성과에 대한 청취는 거의 1년에 걸쳐 수십 차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²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필자는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조사한 내용이 바로 붓글씨의 주인공 ‘佐藤政次郎’가 과연 누구인가를 밝히는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佐藤政次郎에 대한 추적조사 작업의 대부분을 井上교수와 井上 특별연구원이 전담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에 소개하는 인용문은 당시 井上 교수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아 붓글

19) 『최종보고서』 149쪽.

20) 구체적인 면담내용 및 일정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수십 차례에 걸친 면담에 친절하게 응해주신 井上勝生 교수와 井上 薫 특별연구원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씨의 주인공 佐藤政次郎에 대한 추적조사 작업을 맡았던 井上 특별연구원의 회고이다.²¹⁾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가 벌인 진상조사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관련 내용 전체를 인용한다.

의뢰를 받은 것은 北海道大學부속 중앙도서관에 있는 두 개의 한국신문 『大韓每日申報』와 『皇城新聞』으로부터 「첨부문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단서삼아 ‘사토 마사지로(佐藤政次郎)’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는 기사를 조사하는 일이었다. 두 신문 모두 일간지(日刊紙)였기 때문에 ‘9월 20日’이라는 첨부문서의 날짜를 단서 삼아 ‘사토 마사지로’ 관계 기사를 찾았다. 앞뒤 2개월분을 찾아보았지만 관련 기사가 발견되지 않아 일단 단념하고 필자 자신의 논문 작업을 했다.

며칠 뒤 『매일신보』(『대한매일신보』를 조선총독부가 어용지화(御用紙化)한 신문) 1911년 1월 12일자에 실린 기사 「학무협의회」를 보다가 회의 출석자 이름 가운데 우연히 ‘사토 마사지로’라는 이름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직책은 ‘진주(晉州) 실업학교장’이라고 되어 있었다. 진주는 경상남도에 있는 도시로 전라남도 진도와는 비교적 가까운 편이다. 토요일 오후였지만 도서관 폐관 시간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1907년, 1909년분 한국 학부(學部) 『직원록(영인본)』을 확인하러 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직원록』에 ‘사토 마사지로’는 없었다. 그러나 이전에 1920년대 농업교육에 대해 조사했을 때 실업학교장이 쓴 문장이 농업 관계 잡지에 이따금 게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 내고 해당 잡지가 소장된 서고 쪽으로 발길을 향했다. 北海道大學 전신은 삿포로(札幌)농학교이다. 이 때문에 북해도대학부속 중앙도서관에는 농업관계 잡지가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다. ‘한국병합’ 직후에 나온 『한국중앙농회보』를 조사하던 중 “진주(晉州) 도기사(道技師) 사토 마사지로”에 의해 쓰여진 조사 보고를 발견하였다. ‘진주 실업학교장’의 직함은 아니었지만 ‘사토(佐藤)’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좀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조사했다. 그러자 1908년 목포(木浦) 임시면화재배소장에 ‘사토 마사지로’라는 이름이 들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목포는 진도와 똑같이 전라남도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목포로부터 진도를 ‘시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토’가 1906년 시점에 목포 또는 그 인근에 있었다면 1908년의 ‘사토’와는 무언가 ‘차이가 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여 다시 더 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한국중앙농회보』 1907년 11월호의 농

21) 필자가 이노우에 카오리 특별연구원으로부터 자신의 조사경험을 처음으로 청취한 것은 1996년 2월 한승헌 변호사와 함께 홋카이도대학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러나 그 당시 필자는 유골방치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다행히 1997년 4월 홋카이도대학에 유학한 이후 이노우에 특별연구원과는 친밀한 교유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측의 진상조사 과정에 얽힌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이노우에 카오리 연구원 자신의 경험을 상세하게 청취할 수 있었다. 참고로 위의 이노우에 특별연구원의 글은 다음의 글에서 인용했음을 밝힌다. 井上薰 [北海道大学文学部古河講堂頭骨放置事件] (『知の植民地支配』、社会評論社、1998)、18-19쪽.

회(農會) 가입회원 명단 속에 ‘사토 마사지로’(이하 ‘목포의 사토’)가 있었다. 또 가입회원 명단 두 줄 왼쪽에서 ‘군산(群山)의 사토 마사지로’(이하 ‘군산의 사토’)도 찾아냈다. 군산은 전라북도로 두 사람의 사토 마사지로의 거주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통해서 동명이인(同名異人)임이 분명했다. 이상과 같은 조사 과정을 거친 필자는 이 노우에 교수에게 목포와 군산에 있던 두 명의 사토 마사지로의 존재를 보고하였다. 이로부터 필자와 두개골 문제와의 관계는 시작되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필자가 찾아낸 사료 내용을 보고하러 이노우에 교수 연구실을 찾아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북해도 대백과사전』을 펼쳐 보면 하코다테(函館) 출신 사회사업가에 사토 마사지로란 인물이 있음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노우에 교수는 하코다테 시립도서관으로 출장을 가서 부재중이었다. 또 이 무렵 동경의 조선대학교 금병동(琴乘洞) 교수는 군산의 사토를, 북해도대학 부속 중앙도서관 북방자료실에 근무하고 있던 야마모토(山本)씨는 동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목포 안내지도를 통해 북해도가 본적인 사토라는 인물을 각각 찾아냈다고 한다. 또한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기자로 러일전쟁 기간 중에 목포흥농협회(木浦興農協會)를 포함한 한국농업에 관한 기사를 쓴 사토 마사지로라는 인물도 있음이 밝혀졌다.

‘佐藤政次郎’에 대해 이상과 같은 광범위한 기초조사 과정을 거친 뒤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는 붓글씨의 주인공 佐藤政次郎이 홋카이도대학의 전신(前身)인 삿포로농학교 제 19회 졸업생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두개골 채집 시점(1906년 9월 20일)을 고려해 볼 때 삿포로농학교 제 19회 졸업생 佐藤政次郎만이 동학군 두개골 채집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진상조사는 다시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측은 삿포로농학교 출신인 佐藤政次郎이 동학군 유골 ‘채집’ 시점을 전후하여 한국통감부 권업모범장 목포지장(木浦支場)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으며, 그의 본적이 홋카이도대학부속 중앙도서관 北方資料室에 소장되어 있는 木浦案内地圖 『韓國 全羅南道 主要地 明細圖』²²⁾의 저자로 나오는 佐藤政次郎과 똑같은 北海道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서 삿포로농학교 출신인 佐藤政次郎이 바로 井上 특별연구원이 찾아낸 ‘목포의 사토’와 동일 인물이며, 목포 안내지도를 만든 北海道 출신 佐藤政次郎과도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한편,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의 佐藤은 신문사를 퇴직한 뒤 군산으로 건

22) 北海道大學 附屬圖書館, 『北海道大學 附屬圖書館 所藏 舊外地關係 資料目錄』(1975), 18쪽.

너와 벼농사를 경영하는 지주가 되었던 사실도 함께 밝혀졌으며, 그가 바로 井上 특별연구원이 찾아낸 ‘군산의 사토’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²³⁾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 北海道大學과 관련이 있으면서, 유골 ‘채집’ 장소인 진도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목포의 사토’, 진도와 가까운 목포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목포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군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군산의 사토’, 그리고 한국의 의병(義兵) 처형 광경을 도안으로 삼은 조선풍속 그림엽서를 유품으로 남겼으며, 출신학교인 철학관(현재의 東洋大學)의 은사로 대륙 진출을 주장했던 井上門了와 관계가 깊은 ‘하코다테의 사토’ 등 3인의 사토에 대한 정밀 조사가 다시 계속되게 되었다.

4.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의 반출·반입과 일제의 ‘면화재배 사업’

이상과 같은 내용 확인을 통해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측이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 ‘채집’과 관련하여 3인의 ‘사토’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확인한 필자는 다시 새로운 단계의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것은 바로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진상조사와 별도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채집’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목포의 사토’의 행적을 정밀하게 추적 조사하는 일이었다.

井上 교수 및 井上 특별연구원으로부터 ‘목포의 사토’가 1906년 전후 한국통감부가 주도한 면화재배사업에 참여했던 하급 농업관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단계부터²⁴⁾ 필자는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한국통감부에 의한 면화재배사업을 보도했던 당시의 신문, 농업잡지, 구한국 官報 및 통감부(총독부) 직원록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국내의 농업사 연구자를 비롯하여 북해도대학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井上 교수와 井上 특별연구원이 이미 조사한 각종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정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이십오주년기념지』 상권을 통해 삿포로농학교 출신 佐藤

23) 『중간보고서』, 10-11쪽.

24) 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안 시점은 유골방치사건의 진상규명 및 동학군 유골 국내봉환을 요구하기 위해 북해도대학을 처음으로 방문한 1996년 2월 5일이었다.

政次郎이 목포 임시면화재배소의 농업관리로 임관(任官)된 일자가 1906년 5월 4일이며, 퇴직 일자가 1910년 2월 15일이라²⁵⁾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삿포로농학교 출신 佐藤政次郎, 즉 ‘목포의 사토’가 동학군 유골 채집이 이루어지는 1906년 9월 20일 이전에 이미 목포에 부임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곧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가 찾아낸 3인의 사토 가운데 삿포로농학교 졸업생으로서 한국통감부 하급 농업관리로 부임한 佐藤政次郎, ‘목포의 사토’가 동학군 유골을 ‘채집’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계속해서 필자는 또한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측의 자료 협조를 받아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의 『朝鮮新報』²⁶⁾에 실려 있는 「목포 권업모범장 기수 사토 마사지로, 목포 수원 권업모범장 근무를 명함」이라는 기사와²⁷⁾ 『통감부 공보』의 辭수를 통해서 佐藤政次郎이라는 인물이 적어도 1907년 초까지는 목포에 있었다는 사실을 새로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밀 검토한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 1906년 9월 상순 진도를 포함한 전라남도 각군의 ‘면화재배’ 성적‘시찰’을 위해 대한제국 정부가 농상공부 주사 윤주찬을 파견한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²⁸⁾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라남도 진도는 1906년을 전후하여 한국통감부 권업모범장에 의한 면화재배사업과 관련이 깊은 지방이었으며, 1906년 9월경 면화재배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대한제국 관리의 ‘시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사토 마사지로 본인 앞으로 진도에 대한 ‘시찰’ 참가 명령을 내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가 찾아낸 자료는 물론이고 국내의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대한제국 정부 및

25) ‘목포의 사토’는 목포를 떠난 뒤 경상남도 진주에서 도기사(道技師)겸 진주실업학교장, 평안북도 의주에서 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도기사를 그만둔 뒤에는 경성에서 벼농사를 경영하였고, 1945년 패전 뒤 일본으로 귀국했다.(『최종보고서』, 38쪽) 그리고 1910년 사토의 전근에 대해서는 『경남일보』(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영인본, 1995년)가 「종묘장 기사 임명(1910년 2월 22일부)」, 「진주 종묘장장 임명(동년 2월 28일부)」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며, 또한 동년 3월 13일경 진주에 도착한 사실(동년 3월 16일부)등을 보도하고 있다.

26) 이 자료는 井上 특별연구원의 호의로 입수할 수 있었다. 井上 연구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27) 「작일 발령」 『조선신보』 1907년 1월 16일자, 2면.

28) 「면화재배 시찰」 『대한매일신보』 1906년 9월 9일자 2면; 「면적(棉績)시찰」 『황성신문』 1906년 9월 10일자 2면.

통감부 관계 문서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지만 1906년 9월 전후의 관련 공문서는 찾아낼 수 없었다.

한편 統監府 勸業模範場 木浦支場(=木浦出張所)은 1905년에 일본의 大日本棉花栽培協會가 그 기초를 닦고, 대한제국 정부가 인수하지만 얼마 뒤 권업모범장 설립과 동시에 통감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뒤 통감부는 다시 형식적으로 대한제국 정부에게 이관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실질적으로는 통감정치를 통한 ‘指導’를 계속하였으며, 1908년에는 농상공부대신 소관의 臨時棉花栽培所로 바뀐다.²⁹⁾

통감부 권업모범장 목포지장의 技手 佐藤政次郎이 전남 진도에서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을 ‘채집’하게 되는 1906년 9월 20일까지의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일본면화재배협회는 대한제국 정부와 “한국정부는 전라남도 기타 면작 적지에 綿採種圃를 설치하여 일본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도록 할 것”³⁰⁾등의 조항이 포함된 협정을 맺는다. 동협회는 그 협정에 따라 1906년 3월 대한제국 농상공부로 하여금 “면화재배 채종포 사업을 대일본면화재배협회에 위탁”하도록 만든다.³¹⁾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의하면, 1906년 무렵의 목포 면화재배사업은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었으며, 이 출장소는 “당분간 木浦理事廳 안에 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³²⁾ 1906년 당시의 목포 출장소 건물은 현존하지 않으나 그 옆에 있었던 이사청 건물은 현재도 남아 있으며, 지금은 목포문화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대일본면화재배협회 설립에는 일본의 官民 가운데 有力人士들이 참여하였으며,³³⁾ 설립에 참가한 유력자 가운데는 原敬(하라 다케시)³⁴⁾ 등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면화

29) 권업모범장 설립과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김도형 「권업모범장의 식민지 농업지배」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3집(1995년 9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통감부 권업모범장은 1910년 ‘한국합병’에 의해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으로 바뀌었으며, 1929년에 다시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으로 이름이 바뀐다.

30) 目賀田男爵 傳記編纂會 『男爵 目賀田種太郎』(1938년), 520쪽.

31) 臨時棉花栽培所 『臨時棉花栽培所 報告』第 壹號(木浦, 1909년), 10쪽.

32) 「一九〇六年農工商務部事務公債」 「韓國ノ施政改善ニ關スル事項, 農務ニ關スル施政改善事項」(二三)及び(三〇) 『駐韓日本公使館記録』第 二十六卷(國史編纂委員會, 1992년), 505쪽. 이 기록은 사진판으로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글에서 인용한 부분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원판에서 확인하였다.

33) 창립합의가 이루어진 협의회는 1905년 4월 12일에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일본 政友會, 進歩黨, 農商務省, 紡績聯合會 대표 등이 참가했다. 창립총회는 7월 25일에 개최되었다. (權泰憶 『韓國 近代綿業史 研究』一潮閣, 1989년, 85쪽)

34) 하라 타케시(1856-1921)는 동학혁명 당시 외무성 통상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선 문제에 관여했으며, 1895년 외무차관을 거쳐 1896년에는 주조선공사로 근무한 조선통이었다.

에 관한 조사』와 『原敬日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도의 면화재배 상황은 목포 임시면화재배소에서 간행한 『임시면화재배소보고』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홋카이도대학부속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목록에는 제 2호(1910년)만이 실려 있었으나,³⁵⁾ 조사결과 제 1호(1909년)도 미정리 팜플렛 더미 속에 묻혀 있었다. 이렇게 찾아낸 『임시면화재배소보고』를 통해서 전라남도에 설치된 면채종포가 10개소에 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진도 府內面의 경우, “이미 개간된 땅을 매수하여 그 작인에게 면작을 하게 하다” “매수한 땅 10.18정”³⁶⁾과 “개간되지 않은 땅을 개간하여 면채종포를 창설하고 이른바 自營 방법에 의한다” “자영지는 1정으로 되어 있었다.”³⁷⁾ “종래 (중략) 전라남도 중에서도 유명한 면작지”였던 진도의 면화재배 성과는 “재배자 열심을 결여하여 연래의 작황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보였는데, 같은 진도에서도 “자영 재배하는 자는(중략) 그 성적이 양호”했던 점³⁸⁾에서 미루어볼 때 면채종포 ‘매수’ 방법 등에서 현지 주민의 반발을 초래할 만한 문제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더하여 義兵들에 의한 ‘피해 상황’도 보고가 되고 있었다.³⁹⁾ 1900년대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일제에 대한 의병들의 공격은 진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게다가 진도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이 청국와의 전쟁과는 전혀 별개로 일본군을 조선 남부까지 남하시켜 진도를 포함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동학군을 대대적으로 ‘학살’했던 역사적 사실⁴⁰⁾을 고려할 때, 진도 지역민들은 일본에 대한 저항감이 대단히 강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렵게 찾아낸 『임시면화재배소 보고』 내용들은 모두 1908년 이후의 보고였으며, 그 뒤의 조사과정에서 다시 진도 면채종포에 장려금을 수여하는 날짜가 ‘9월 20일’임을 알려주는 『면화재배협회 제2회 보고서』(임시면화재배소가 되기 전에 나온 보고서)를 찾아낼 수 있었다.⁴¹⁾ 이 보고서

35) 北海道大學 附屬圖書館 『舊外地關係 資料目錄-朝鮮-臺灣-滿州(東北)-』(1975), 75쪽.

36) 『臨時棉花栽培所 報告』 第 1號 (1909년), 14쪽.

37) 『臨時棉花栽培所 報告』 第 1號, 17쪽.

38) 『臨時棉花栽培所 報告』 第 1號, 32쪽.

39) 『臨時棉花栽培所 報告』 第 2號(1910년), 6쪽.

40) 『최종보고서』, 71-84쪽.

41) 이 자료는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측의 제 1차 한국 현지조사(1995년 12월)때, 서울대학교 김용덕 교수가 제공함으로써 널리 알려진 자료이다.

내용에 의해 ‘목포의 사토’가 동학군 유골을 ‘채집’했다는 사실이 거의 틀림 없는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는 3인의 사토 가운데 ‘군산의 사토’와 ‘하코다테의 사토’ 역시 1906년 9월 20일에 진도에 없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료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종보고서』에서 동학군 유골을 ‘채집’한 인물에 대한 확실한 斷定을 내리지 않았다. 참고로 ‘목포의 사토’가 관여한 1906년 당시의 면화재배사업이 지닌 침략적 성격에 대한 연구로는 권태익 교수의 『한국근대면업사 연구』⁴²⁾라는 업적이 있음을 밝혀 둔다.

5.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의 반출·반입과 삿포로 농학교와의 관계

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인 井上 교수는 동학군 유골이 어떤 경로를 거쳐 한국에서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었을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목포의 사토’ 즉 삿포로농학교 제 19기 졸업생인 佐藤政次郎이 조선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佐藤政次郎과 삿포로 농학교의 관계 규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井上 교수는 홋카이도대학 부속도서관 북방자료실과 동 대학 농학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삿포로농학교 관계 사료를 통해 제 19기생 사토가 1901년에 삿포로 농학교장인 사토 쇼스케로부터 「殖民論」을 수강한 사실⁴³⁾을 밝혀냈으며, 역시 북방자료실에 소장된 사토 쇼스케 일기를 통해서 사토 쇼스케가 佐藤政次郎 본인 및 佐藤의 부친과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⁴⁴⁾ 사토 쇼스케는 학교장이라는 위치를 활용하여 졸업생들의 취직 알선도 하고 있었는데, 당연하지만 그 같은 취직 알선에는 타이완(대만), 한국(대한제국), 만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최종보고서에는 사토 쇼스케가 삿포로농학교 교수 宮部金吾(미야베 긴고) 앞으로 보낸 다음과 같은 1908년 10월 16일자 편지가 인용되어 있다.

(전략)

42) 앞의 주 21) 참조.

43) 『최종보고서』, 114-121쪽.

44) 『최종보고서』, 114-121쪽.

1. 관동주(關東州; 만주-필자) 산림 기사의 건은 시기가 서로 여의치 않기 때문에 따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지난번에 당국이 니토베(新渡戶)씨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어젯밤 통보를 통해서 접했다는 이야기를 고이데(小出) 씨로부터 듣고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 타이완에 화학 전공자 1명을 보내는 일에 대해 지난 번 오시마(大島) 씨로부터 거절을 당해 새로 대신할 만한 인물에 대해 니토베 씨로부터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오시마 씨로부터 가능한 인물을 선발 파견하되 성적이 양호한 인물을 원한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⁴⁵⁾

井上 교수는 또한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의 추가조사 과정을 통해서 1906년 5월에도 사토 쇼스케 교장이 滿州의 奉天에 있는 일본군 사령관 앞으로 보낸 다음과 같은 전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니토베 박사의 전보에서 말한 농사시험 기수(技手)는 적임자가 있기 때문에 월봉(月俸)150엔씩에 2명을 채용했다는 사실을 요코야마(横山)기사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⁴⁶⁾

이상의 두 가지 사료에 의하면, 사토 쇼스케는 1906년 당시 삿포로농학교를 이미 떠난 新渡戶稻造(니토베 이나쥬)와도 연락이 닿고 있었으며, 특히 농업 기술자의 취직 알선에 있어서는 사토 쇼스케-니토베 이나쥬 라인을 통한 알선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토 쇼스케 교장은 특별히 농상무성 관계자와도 서간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당시 농상무성 인맥은 조선에 대한 식민정책, 즉 殖産 및 綿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사토 쇼스케는 농상무성 農事試驗場長으로 한국에 체재한 적이 있던 古在由直(코자이 요시나오, 1864-1934), 조선의 면업 상황을 시찰했던 농업관리 月田勝三郎(츠키타 후지사부로), 동경제국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일본 농상무성 조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의 토지농산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나중에 한국 권업모범장장이 된 本田幸介(혼다 고스케) 등과도 서신을 주고받았다. 사토 쇼스케는 또한 동향인이기도 한 니토베 이나쥬, 하라 타케시, 사토 마사지로의 부친 사토 쇼고로 등과도 서간을 교환하고 있었다. 사토 쇼스케 교장과 서신을 주고받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니토베 이나쥬는 미야베 긴고, 内村鑑三(우치무라 간쥬) 등과 함께 삿포로농학교 제 2기 졸업생이었으며, 사토 쇼스케는 자신은 바로 니토베의 선배이기도 했다. 죠오지 오시로가 쓴 『니토베 이나쥬』⁴⁷⁾에 따르면, 니토베의

45) 北海道大學 農學部 所藏 『宮部金吾 文書』; 『最終報告書』, 123-124쪽.

46) 「八一 奉天政宮 へ回答ノ件 五月七日佐藤農學校長發 奉天軍政宮宛(六十三字, 二円七十錢)」(簿書番號 No. 八一三 『明治三十九年 札幌農學校公文錄』 第一冊, 秘密書類(永久), 北海道大學 北方資料室 所藏)

47) ジョージ オーシロ 『名譽 努力 義務: 新渡戶稻造—國際主義の開拓者』(日本, 中央大學出版部, 1992年)

미국 유학 시절에 당초 유학중이던 대학을 다른 대학으로 바꾸는 데 직접 관여한 인물이 바로 사토 쇼스케였으며,⁴⁸⁾ 니토베는 쇼스케와 함께 볼티모어에서 2년 동안 함께 생활할 정도로⁴⁹⁾ 절친한 사이였다. 미국 유학을 마친 니토베는 사토 쇼스케의 주선으로 1891년부터 1897년까지 삿포로농학교 교수로 근무하기에 이른다.⁵⁰⁾

사토 쇼스케 교장은 제 19기생 사토 마사지로의 졸업 이후의 이동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사토 쇼스케와 사토 마사지로 사이에 교환된 서신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⁵¹⁾ 1901년 7월에 삿포로농학교를 졸업한 사토 마사지로는 1년 지원병으로 입대하여 月寒 연대에서 근무했으며 제대 후에는 목축업을 경영한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소집에 응하여 釧路 연대구에 소속되었으며, 1906년 3월 소집해제 됨에 따라 동경으로 건너가 잠시 체재하다가, 동년 5월 4일 한국 통감부 권업모범장 技手로 임명되어 6월 5일 동경을 출발하여 한국으로 향했다.⁵²⁾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사토 쇼스케는 1905년 7월과 9월, 12월에 각각 홋카이도 쿠시로 연대구에 있던 마사지로 앞으로 편지를 ‘발신’하고 있으며, 1906년 3월에는 극히 단기간 밖에 체재하지 않았던 동경 荒川區의 마사지로 앞으로 편지를 ‘발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가 단지 마사지로의 편지를 ‘수신’하여 그의 이동 상황을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1906년 1월에는 마사지로의 부친 사토 쇼고로가 쇼스케 교장을 ‘來訪’한 사실도 확인되었다.⁵³⁾

최종보고서 발표 뒤 계속된 추가 조사를 통해서,⁵⁴⁾ 사토 마사지로는 삿포로농학교 4학년 시절에 ‘校費生’으로 선발되어 “수업료 면제 외에 학비로 ‘월 7엔’씩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때문에 사토 마사지로는 “졸업 후 만 5개년 간 그 신분 진퇴에 관해서는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라는 교칙 제 53조 이행을 위해 사토 쇼스케 교장에게 ‘허가’를 요청하였으

48) 上掲書, 27쪽.

49) 上掲書, 36쪽.

50) 上掲書, 52쪽.

51) 『최종보고서』, 114-117쪽.

52) 『최종보고서』, 111쪽.

53) 『최종보고서』, 117쪽.

54) 井上勝生「佐勝昌介『植民論』ノート—植民學と札幌農學校—」『北海道大學文學部紀要 四十六卷二號』(1998年 3月).

며, 쇼스케 교장은 그 같은 마사지로의 요청을 허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토 쇼스케 교장이 마사지로의 취직 알선에 직접 관여했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조사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적어도 사토 쇼스케 교장이 마사지로의 한국 통감부 권업모범장 기수 취직을 허가했다는 사실만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6.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의 반출·반입동기 및 반입 경로

삿포로농학교 제 19회 졸업생 佐藤政次郎이 면화재배사업 관계로 전라남도 진도로 ‘시찰’을 갔다 해도 사람의 ‘두개골’에 흥미를 지니고 있지 않았더라면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 ‘채집’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佐藤政次郎은 인류학에 관한 어느 정도의 흥미나 관심,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서 아니면 단순한 관심이나 흥미 때문에 동학군 유골을 ‘채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목포의 사토’ 즉 삿포로농학교 제 19회 졸업생 佐藤 자신은 인류학 연구자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동학군 유골을 ‘채집’한 그는 ‘채집’ 뒤에 사람의 ‘두개골’에 관심이 많은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引渡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토 마사지로와 그 누군가의 사이에 중개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식민지배에 깊은 관계가 있는 북해도대학에 한국의 동학군 지도자 유골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동학군 유골이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는 과정에 삿포로농학교 관계자가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홋카이도대학의 『최종보고서』는 삿포로농학교 출신인 니토베 이나쥬와 미야베 긴고가 사람의 ‘두개골’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료로, 1883년 7월 11일자로 니토베 이나쥬 앞으로 보낸 미야베 긴고의 서간과 「미야베 긴고 씀 홋카이도의 다시마 조사여행 일기」 가운데 1894년 7월 23일과 24일의 쿠시로 조사 항목을 소개하고 있다.⁵⁵⁾

전자는 동경제국대학의 “박물학·고물학 담당 佐々木(사사키)”의 부탁을 받은 미야베가 사사키와 “에조인(아이누인) 측루”를 주고받을 때 당시 동경에 있던 니토베가 그 지불금액 교섭에 관여한 기록이며, 후자는 “傳習科 졸업생이자 삿포로 교회 멤버인 夏堀(나츠호리)가 나(미야베-필자)를 위해

55) 『최종보고서』, 147-149쪽.

아이누인의 두개골 한 개를 수집해 주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사료이다.⁵⁶⁾ 요약하자면, 삿포로농학교에서는 최소한 미야베 긴고가 ‘두개골’ 수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삿포로 농학교 졸업생을 통해서 실제로 ‘두개골’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니토베 이나쥬 역시 1906년 시점에서 삿포로농학교에 있진 않았지만 1895년에 삿포로 인류학회를 창설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⁵⁷⁾ ‘두개골’에 관한 관심이나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인물이다.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이 한국에서 일본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게 된 경로 해명을 위해서는 우선 ‘목포의 사토’의 근무이동 상황을 밝히는 일이 중요했다. ‘목포의 사토’는 통감부의 하급 관리였기 때문에 공무로 인한 이동 상황(출장 등)이 공문서에 남아 있으며, 또한 당시의 신문 등에 보도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1906년 당시 목포에는 거류 일본인이 발행하고 있던 『木浦新報』라는 신문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그 소재 및 현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⁵⁸⁾ 在朝鮮 거류일본인이 발행하고 있던 신문 가운데 1906년 9월 전후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신문으로써 그 원본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신문은 인천(仁川)에서 발행되고 있던 『朝鮮新報』 뿐이었다. 목포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인천의 『조선신보』에서 목포의 사토 마사지로 관계 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고 목포와 진도 관계 기사를 조사했다. 또한 ‘채집’일 직후 사토 마사지로의 이동을 알려주는 사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집’일 직후에 사토 마사지로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에 주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사토 마사지로 개인의 동정을 알려주는 기사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 “(동경)제일고등학교장 농·법학 박사 니토베 이나쥬 씨는 금번 이토(히로부미)통감의 요청에 따라 곧 내한하여 한

56) 「北海道 昆布調査 施行日記」의 원문은 英文이지만, 카와지마 쇼지(川嶋昭二)씨가 번역하여 『地域史研究 はこだて』二十四號에 게재했다고 한다.(『최종보고서』, 148쪽)

57) 『최종보고서』, 134쪽.

58) 『최종보고서』, 134쪽. 목포신보가 소장되어 있는가를 목포 시립도서관과 목포 문화원에 문의했지만, 목포는 한국전쟁 당시 거의 파괴되었으며, 목포신보사 역시 소실되었기 때문에 현존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얻었다.(목포 문화원 李聖烈씨의 증언에 의함) 그런데 『日韓キリスト教關係資料Ⅱ—一九二三—一九四五—』(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編, 新教出版社, 1995年)에 『木浦新報』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한국의 金承台씨에게 문의한 결과, 서울대학교 소장 신문 스크랩에 있는 기사를 수록한 것으로 원본이 아니었다.

- 국 농사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1906년 10월 7일자)
- ② “니토베 박사 도한(渡韓)의 용무는 면작(棉作) 사탕 등의 식부(植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동년 10월 12일자)
- ③ “농학박사 코자이 요시나오(古在由直), 동 혼다 고스케(本田幸介), 기사(技師) 나카무라 히코(中村彦), 동 안도 고타로(安藤廣太郎) 제 씨는 면작 재배 정황 기타 농사 시찰을 위해 목하 목포 지방을 순회중이라는 소식, 동지(同地)로부터의 최근 소식에서 볼 수 있다.”(동년 10월 12일자)
- ④ “농·법학 박사 니토베 이나쵸 씨는 미네네(峰根) 『(동경)경제잡지』 기자와 함께 5시 도착 열차로 인천에 도착. 그 날 밤은 거류민 유지(有志)들이 가토(加藤) 총영사와 동 니토베 박사를 위해 개최한 만찬회에 참석하고 하라가네(原金) 여관에서 일박. 어제 아침 귀경하였다.”(동년 10월 20일자)
- ⑤ “목포 대구(大邱) 지방 면화 시작(試作) 때문에 출장 중인 통감부 권업모범장 혼다(本田)박사가 귀경한 뒤의 보고에 의하면 전라남도의 면화 작황은 대단한 성적이며(중략) 전반적으로 한국의 면화 작황은 전도(前途)가 대단히 유망하다고 한다.”(동년10월 26일자)
- ⑥ “농학박사 니토베 이나쵸 씨는 모범 농장의 마치다(町田) 기사와 함께 군산(群山)지방 농황 시찰을 위해 지난 4일 군산에 도착하였으며(중략) 그날 밤은 오산리(五山里)의 후지이(藤井)농장에서 1박하고, 다음날 정오 군산으로 돌아와 6일 출발하는 오하요호로 목포로 향했다.”(동년 11월 10일자)

이상의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 삿포로 농학교 교수였던 니토베 이나쵸가 1906년 11월 4일 군산을 경유하여 6일에 목포로 향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이 기사를 통해 니토베와 목포의 농업 기수 사토 마사지로가 목포에서 만났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06년 말까지 사토 마사지로는 목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토 마사지로는 1907년 1월 15일자 辭令에 의해 목포 근무로부터 수원·목포 겸직 근무 명령을 받게 되는 데,⁵⁹⁾ ‘채집’일 이후부터 겸무 직전까지도 위의 기사 ③과⑤에 등장하는 本田幸介나, 기사①②④⑥에 언급되고 있는 니토베 이나쵸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용무가 ‘면화 시찰’에 관계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목포에서 사토 마사지로와 대면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⁶⁰⁾ 물론 그들이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진도에서 ‘채집’한 ‘두개골’을 건네주었는지 어떤 지는 명확하지 않다. 여기서는 다만 혼다와 니토베 등의 목포 면화 상황 시찰이 동학군 지도자 유골의 일본으로의 반출, 즉 한국으로부터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출되는 루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해 두고자 한다. 다만, 니토베의 경우,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1895년에 삿포로 인류학회를 창설했다는 점, 삿포로 농학교 시절의 사토 마사지로의 은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점, 삿포로 농학교를 떠난 뒤에도 사토 쇼스케 삿포로농학교 교장과 교류가 지속되고

59) 「統監府 辭令」 『朝鮮新報』 1907년 1월 16일자, 2면.

60) 『최중보고서』, 134쪽.

있었다는 점⁶¹⁾등에서 삿포로농학교와 관계가 깊은 인물이기 때문에 최종보고서 발표 후에도 그의 행적에 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佐藤政次郎은 겸직근무 명령을 받은 뒤부터 서울과 가까운 수원(水原)과 목포 사이를 왕래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서울 근처에서 동학군 유골을 수수(授受)했을 지도 모른다. 『京城新報』를 改題한 『京城新聞(일본어신문)』⁶²⁾에는 사토 마사지로가 서울에 체재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1908년 7월 17일자 “그저께 내경(來京) 파성관”

동 7월 21일자 “그저께 수원으로 귀임”

동 12월 8일자 “5일 입성(入城) 파성관”

동 12월 13일자 “11일 수원을 향해 출발”

한편, 홋카이도대학 부속 중앙도서관 북방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삿포로농학교 동창회 보고』에는 농학교 졸업생들이 모교로 보낸 엽서를 자주 게재하였는데, 그 엽서들은 “만주·몽고·타이완·조선 등지에 거주하던 동창생들이 보낸 ‘요세가키’(여러 명이 함께 쓴 엽서-필자)”였다.⁶³⁾ 그들 농학교 졸업생들은 外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옛 은사나 친구들을 맞이하여 접대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또한, 사토 마사지로가 자신의 고향인 岩手縣(이와데현) 花卷市(하나마키시)로 歸省하던 도중에 삿포로에 들렀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片道 일정만으로도 며칠씩 걸리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쉽사리 귀성을 할 처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시점에서 사토 마사지로가 삿포로에 들렀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자료는 한 가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상으로 전남 진도의 동학군 지도자 유골이 한국으로부터 반출되어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는 경로로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목포의 하급 농업관리로 부임한 삿포로농학교 19회 졸업생인 佐藤政次郎이 자신이 직접 삿포로농학교로 보내는 경로

둘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인맥(佐藤政次郎→(중개자)→니토베 이

61) 예를 들면, 사토 쇼스케 교장이 동경 체재 중이던 1906년 12월 15일 니토베는 쇼스케 교장을 방문하고 있다.(『최종보고서』, 117쪽)

62) 『京城新聞』은 1908년 7월 5일부터. 記事는 「公人私人」란에서 인용했다. 이 『京城新聞』의 창간 일자는 1907년 11월 3일이다.(東京, 國立國會圖書館 所藏)

63) 『최종보고서』, 40쪽.

나조 등 삿포로 농학교 은사 또는 삿포로 농학교 졸업생을 경유하는 경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루트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반입 경로 규명은 佐藤政次郎과 관계가 있는 인물들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운 조사과정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반입 경로 규명은 삿포로농학교, 즉 홋카이도대학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들의 朝鮮認識, 조선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밝히는 중요한 문제이다.

7. 동학농민군 유골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

1996년 4월에 공표된 홋카이도대학의 『중간보고서』는 「첨부문서」와 유골 표면에 쓰여 있던 佐藤政次郎이란 인물이 누구인가는 거의 밝혀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갑오년 12월 말 진도에서 살해된 수백 명의 동학군들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살해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진압과 학살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이 같은 중간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필자는 1996년 5월 29일 홋카이도대학 문학부에서 행해진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 유해 봉환식” 때 있었던 기자회견 과정에서 엄중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동 봉환식장에서 한국 측 봉환단 대표인 한승헌 변호사⁶⁴⁾가 낭독한 「고유문-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로서 싸우다 순국하신님께-」와 봉환단과 함께 동행한 한 MBC(문화방송, 서울)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님은 누구십니까?」⁶⁵⁾에서도 역시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측에 대해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이며, 이 유골을 포함한 진도 동학농민군들이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라도 제대로 규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1996년 4월의 『중간보고서』 공표와 유해 봉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64) 한국 측 봉환단 대표는 오랜 기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 온 한승헌(韓勝憲) 변호사가 맡았다. 한 변호사는 당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이사장이기도 했다. 유골사건 직후 한국에서는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天道敎)측이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등 몇 개의 관련 단체 사이에 ‘유해’ 안치 장소, 봉환식 거행 절차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 이 같은 대립 상황을 한 변호사가 나서서 일원화하였으며, 또한 한국 측과 홋카이도대학 측 사이의 이견 조정도 담당하는 등 동학군 유골의 한국 봉환을 위해 여러 모로 진력하였다.

65) 이 기록 다큐멘터리는 한국에서 1996년 8월 5일에 방영되었다.

대한 반성을 토대로 제 2차 한국 현지조사(1996년 7월)가 이루어졌다. 제 2차 한국 현지조사는 동학농민군에 대한 일본군의 진압 과정, 진도 지역 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조사가 중심이 되었다. 제 2차 현지조사 때에는 준비 단계부터 진도의 향토사가 박주언 씨, 목포의 향토사가 이성렬 씨,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연구자인 필자가 전면적인 협력을 하는 동시에 한국 측 조사 위원회가 발굴한 관련사료를 기꺼이 제공하였다.⁶⁶⁾ 그리하여 한일 공동으로 이루어진 제 2차 한국 현지조사는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인 井上 교수의 노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 분야에 걸쳐 두 나라 연구자들의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동학농민군 후손들로부터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사료제공을 받았다. 한일 공동조사 과정에는 또한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소속의 일본인 대학원생과 한국 유학생도 참여하였다.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측 역시 동학군 진압과 관련한 일본 측 사료(외교 사료관, 국회도서관, 방위 연구소 도서관 자료 등)를 한국 측 연구자 및 관련단체에 전면적으로 제공하는 등 문자 그대로 공동 연구와 공동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상과 같은 커다란 성과들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미해결의 과제 역시 만만치 않게 남아 있다. 미해결 과제에 대한 연구는 공식적인 조사가 종결된 지금도 조사에 참여했던 한일 두 나라 연구자에 의한 개별적 연구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8. 맺음말 - ‘유골방치사건’ 진상조사에서 밝혀진 사실

이상의 조사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06년 9월 20일 전라남도 진도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채집’한 사토 마사지로”는 1876년 설립이후 조선침략 및 식민지배 정책을 이론적·실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던 삿포르농학교(현재의 홋카이도대학) 제 19기 졸업생이었다.

둘째 삿포르농학교 제 19기 졸업생 ‘사토 마사지로’는 재학 시절에 식민론, 인종학 등에 대해 수강한 사실이 있었다.

66) 이 같은 협력은 1996년 5월의 동학군 지도자 ‘유해 봉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한·일 두 나라 연구자들 사이에 한일의 과거사에 대한 직시를 통해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공유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 졌다고 생각된다.

셋째 ‘사토 마사지로’는 삿포로농학교 교장 ‘사토 쇼스케’와 은사 ‘니토베 이나쥬’ 등의 주선에 의해 1906년 5월 4일 한국통감부 권업모범장 목포지장(1908년에 임시면화재배소로 명칭이 바뀜) 기수로 임명되었다.

넷째 목포에 부임한 ‘사토 마사지로’는 1906년 9월 20일 진도의 면화재배 시험지인 ‘면채종포’에서 이루어진 면화재배 시험성적에 대한 장려금 지급식에 하였다.

다섯째 진도의 면화재배 시험성적에 대한 장려금 지급식에 참여한 사토 마사지로는 누군가의 제보를 통해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동 유골을 ‘채집’하게 된다.

여섯째 1906년 9월 20일 ‘사토 마사지로’에 불법으로 ‘채집’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은 1906년 11월 6일 목포를 방문한 삿포로농학교 은사 니토베 이나쥬에 건내졌으며, 삿포로인류학회를 창설하고 평소 유골에 관심이 많았던 니토베는 동 유골을 모교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곱째 유골의 주인공은 진도출신 동학농민군지도자 가운데, 하조도 출신인 朴仲辰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여전히 밝혀지지 아니한 문제도 많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 못한 문제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佐藤政次郎으로부터 북해도대학으로 동학군 유골이 반입된 구체적인 경로에 대하여

몇 가지 경로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확인되었지만 관련 인물이 대단히 많고 사토 마사지로 자신이 일본으로 돌아온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누군가 중개자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 중에 있다.

② 佐藤政次郎이 ‘의도적으로’ 동학군 유골을 ‘채집’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결정적 계기에 대하여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 즉 사람의 ‘두개골’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은 사토 마사지로 본인이 인류학적 지식이나 관심을 가졌거나, 아니면 인류학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 마사지로의 교우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사토 마사지로의 삿포로농학교 시절의 은사인 니토베 이나쥬 등이 삿포로 인류학회를 창설하고, 사람의 두개골 수집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③ 佐藤政次郎으로 하여금 朝鮮으로 건너오게 만든 배경은 어떤 것일까?

공식적인 조사가 종결된 현재도 개별 연구자 중심으로 진행 중인 조사에서는 삿포로농학교 시절의 교육, 특히 삿포로농학교 교장 사토 쇼스케로부터 수강한 『식민론』, 니토베 이나조 등으로부터 수강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인종론』 강의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조사 중이다.

④ 삿포로농학교 시절부터 홋카이도제국대학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두개골에 대한 연구를 담당했던 동 대학의 해부학교실 및 인류학교실의 변천 및 ‘표본’ 입수 경로 등

조사 대상이 된 세 명의 사토 가운데 ‘군산의 사토’ 역시 조선과 관계가 깊은 인물로 특히 米穀 수탈구조 속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군산의 사토 마사지로’가 비록 이번에 일어난 유골방치사건에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재조선 일본인 신분으로 조선 땅에서 저지른 침략 및 수탈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유골방치사건이 일본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한국과 러시아 등으로 널리 알려지자 홋카이도대학 문학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하였다. 또한 관련 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의 동학군 유골과 러시아의 율타민족 유골은 정중한 절차를 밟아 본국으로 봉환하고 해당국 정부 및 국민들 앞에 유골을 오랜 기간 방치해 온 잘못에 대해서 사죄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이 같은 사죄의 토대 위에서 전개된 한·일 두 나라 연구자들의 공동조사, 공동연구는 유골방치사건을 두 나라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전향적 계기로 삼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종래보다 進一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 한국 측이 동학농민군 유골방치사건이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홋카이도대학 전체 차원에서 인식하여 대응해 것을 시종일관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골방치사건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농학부, 이학부, 의학부 등이 문학부에 의한 공식조사가 종결되는 순간까지 철저히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던 사실은 결코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홋카이도대학 유학 시절에 필자는 일본의 舊帝國大學을 계승하고

있는 7개의 국립대학 박물관에 식민지시대에 반출된 한국인의 두개골이 1,000구 이상 ‘표본’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⁶⁷⁾ 그리고 이들의 상당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출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일본 국립대학 박물관 안의 한국인 두개골 ‘표본’들은 그것이 비록 ‘표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집 및 반출과정이 수탈이나 다름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언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 유골방치사건이 일어난 홋카이도대학의 경우는 특히 의학부가 가장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홋카이도대학 의학부에서는 사람의 두개골을 연구 재료로 삼기 위해 1945년 이전 인류학자 兒玉作左衛門(고다마 사쿠자에몽, 1895-1970) 등이 중심이 되어 아이누민족 두개골을 대량으로 수집한 적이 있으며, 현재도 1천 구 이상의 아이누 민족 인골이 의학부 표본고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홋카이도대학 의학부는 여전히 동학농민군 유골방치사건과 의학부 표본고에 안치된 인골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견해는 어디까지나 의학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이누민족이나 관련 시민단체들은 의학부 주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⁶⁸⁾ 따라서 이번 동학농민군 유골방치사건은 향후, 어떤 형태로든 과거 홋카이도대학 의학부를 비롯하여 구 제국대학의 전통을 잇고 있는 일본 내 국립대학들에 의해 이루어진 인골 수집 방법의 문제나 인골을 조사 연구 대상으로 삼은 데 따른 책임 문제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67)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인류학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68) 北大人骨事件真相究明緊急會議、『歴史の眞實』1, (東京、労働者共闘、労働運動活動者評議會合同事務局, 1999) 参照.

<요지>

이 조사 내용은 1995년 7월 25일, 일본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인류학교실 표본고에서 발견된 동학군 유골 문제를 다룬 글이다.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방치사건의 개요 및 지금까지의 조사경과를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제 2장에서는 유골방치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의 결정적 단서가 된 「첨부문서」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첨부문서」 및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 표면에 쓰여진 ‘佐藤政次郎’이라는 인물이 홋카이도대학의 전신인 삿포로농학교 제 19회 졸업생이라는 사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다. 제 4장에서는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이 일본으로 반출되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요약하면, 동 유골은 19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면화재배사업’을 통해 조선을 침략하려는 일제의 식민정책을 수행하던 하급 농업관리에 의해 채집되어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 5장에서는 동 유골을 일본으로 반출한 佐藤政次郎의 출신교인 삿포로농학교, 즉 현재의 홋카이도대학의 관련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다. 유골 채집자 佐藤政次郎은 재학시절에 교장 佐藤昌介로부터 植民論을 수강했으며, 졸업 후에도 佐藤 교장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 6장에서는 동 유골이 채집되어 일본으로 반출되고, 그것이 다시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게 되는 동기와 경로에 대해 설명하였다. 채집 및 반입 동기는 바로 ‘人種論’ 때문이었던 바, ‘인종론’이란 사람의 두개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 했던 잘못된 학문이다. 제 7장에서는 동 유골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가를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끝내 유골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特定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제 8장에서는 동학농민군 유골방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한일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들에 대해 요약하였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박 선 주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일본 북해도대학교 문학부 소속 후루카와(古河)강당 구표본고에서 머리뼈 6개체가 발견되었다. 1995년 7월 25일의 일이다. 머리뼈 중 한 개체의 머리뼈 표면에 ‘韓國東學黨首魁 首級, 佐藤政次郎’ 이라는 글이 붓글씨로 쓰여 있었다. 이 머리뼈의 발견은 그해 8월 3일에 일본 교도(共同)통신발 기사로 한국에도 알려져, 8월 4일에 한겨레신문을 비롯하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이 교도통신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사단법인 동학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한승헌)에서는 8월 19일 북해도대학교에 진상 규명 및 한국동학지도자의 머리뼈의 국내봉환과 왜 동학농민군지도자의 머리뼈가 일본 북해도대학교에서 발견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북해도대학 측에 성실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이후 기념사업회는 북해도대학교 문학부측과 봉환 협의를 거쳐 1996년 5월 30일 머리뼈 국내봉환을 성사시켜 5월 31일 전주에서 진혼제를 개최한 후 황토현 기념관 사당에 임시 안치하였다.

이렇게 머리뼈의 국내봉환은 성사되었지만 일본 측의 중간보고서는 북해도대학교가 어떤 경로를 통해 머리뼈를 수집했는지, 수집 후 어떤 목적으로 연구를 했는지 또 이 머리뼈이외에 다른 조선인 머리뼈를 수집했는지, 수집 후 어떤 이유 때문에 오랜 기간 방치된 채로 보관해 왔는지 그 경위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기념사업회는 ‘동학혁명군지도자 유해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유골과 관련된 문제의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문헌사학자와 인류학자 및 법의학자들로 구성되어 각기 분야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위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 중 먼저 봉환된 머리뼈의 해부학상 특징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조사 및 인류학상/유전학상 방법을 사용하여 머

리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규명하고, 가능하면 진도 출신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가늠되는 머리뼈의 주인공의 가족을 찾아 내고자하였다.

조사한 자료는 완전한 형태의 머리뼈이다. 황토현 사당에 보관중이던 머리뼈는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의 고인류실험실로 옮겨와 조사하였다. 뼈의 손상을 막기 위해 10%의 poly Vinyl Acetate로 경화 처리하였다.

머리뼈의 인류학적 조사는 남녀가늠하기, 나이 찾기, 및 머리뼈의 해부학상 특징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남녀 가늠하기와 나이 찾기는 머리뼈의 해부학상 특징과 이빨의 DNA 분석에 따랐으며, 머리뼈의 특징은 형태와 크기를 바탕으로 하였다.

머리뼈 크기의 재기는 마틴(Martin, 1928)의 방법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와 관련된 학자들의 방법도 참고하였다(Howells, 1973, Bass, 1987: Ding, 1983). 크기는 밀리미터로 표시하였으며 머리뼈의 비교는 시마 고로(島五郎, 1934)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우리말은 주로 손보기 등 (손, 1988: 박, 1994)의 연구에 따랐으며 대한해부학회 연구를 참고하였다.

머리뼈 이음새의 맞물린 정도는 1-4등급정도(Martin, 1928)로 분류된다. 이빨은 위 왼쪽 첫 번째 어금니를 제외하고는 없으나 이빨곰으로 보아 세 번째 어금니까지 모두 나왔으나 죽은 후에 빠졌다. 위 왼쪽 첫 번째 어금니의 닳은 정도(2도)로 보아 40대 이후로 가늠된다.

머리뼈와 이빨의 해부학상 특징 및 유전자 분석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머리뼈의 주인공은 30-40세 정도의 남성으로 가늠된다.

이 머리뼈의 주인공은 1894년 동학농민군의 한사람으로 진도에서 체포되어 효수당한 30-40대의 남자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에 가족들은 주인공의 시신을 매장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친척관계조차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주인공의 인척이 누구였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으나 진도에서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세 명이 관련되어 있다고 조사되었다. 진도의 朴仲辰, 孫行權, 金秀宗씨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머리뼈의 주인공과 관련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DNA비교 검사 방법에 문제가 있기에 주인공과 친척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지금까지의 진행된 문헌조사에 따르면 동학농민군 머리뼈는 농민군들이 처형당했던 진도 솔계재(松峴里) 근처에 가매장 상태에서 1906년 진도에 온

일본인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 기수 사토 마사지로에 의해 불법으로 채집되어 북해도대학교로 보내져 고하강당 내 구표본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19세기말 일본의 한국침탈과 농민군에 대한 불법처형 및 불법 채집은 1905년 러일전쟁 승리 후 일본국내에서 고조된 조선인의 멸시관과 조선의 식민지화 여론 및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이민 침탈정책 추진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1905년 이후 격화된 조선의병전쟁과 1910년 이후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 강제연행과도 관련이 있다.

이제 이 머리뼈의 주인공을 통해 과거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빚어진 양국간의 불행했던 과거 역사를 분명히 밝히고 올바르게 정리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 조선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인 학제간의 연구에 바탕이 되어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희생자들의 인간권리를 찾아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의무가 있음을 알린다.

